최명희의 『혼불』 연구

최 윤 경*

〈차 례〉

Ⅰ. 서언
Ⅱ. 지배담론으로서의 가부장 신화
1. 가부장으로서의 청암부인의 신비화
2. 효원의 가부장 신화 승계
Ⅲ. 사회적 증상으로서의 가부장 신화
1. 가부장 신화의 자기균열, 근친상간
2. 권력의 재생산, 변동천하의 꿈
Ⅳ. 가부장 신화 비판으로서의 『혼불』
1. 윤리적 주체 실현의 가능성
2. 비폭력의 역사를 위한 서사
Ⅴ. 결어

Ⅰ. 서 언

『혼불』(매안, 2009)은 작가 최명희가 바위를 뚫어 글을 새기듯 17년에 걸쳐 1-5부 전10권으로 써낸 소설이다. 작가 최명희는 『혼불』을 완간하기 전 '해방과 6·25, 그리고 4·19까지 자료를 준비했으나 못다 한 이야기를 뒤쫓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1]고 하였으며 『혼불』을 완간한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1) 최명희, 「後記」, 『魂불』, 동아일보사, 1983, 476-477쪽 참고.

이후에도 여러 매체에서 남은 이야기에 대해 집필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실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소설원론적인 관점에서 『혼불』을 '미완의 서사'라는 전제 아래 논의를 펼쳐가고 있으며 김윤식의 논의는 그러한 평단의 시선을 대표한다.[2] 김윤식의 관점은 헤겔 미학을 준거로 삼은 데서 비롯한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조화를 미의 표준으로 보는 헤겔의 관점에서 보면 『혼불』은 처음·가운데·끝의 형식미를 갖추지 못해 '산문 형식의 미달'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는 헤겔 미학에 한정한 만큼 논의의 방향을 달리하면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김윤식은 같은 글에서 헤겔 미학에 비추어 『혼불』을 읽었던 종래의 입장과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혼불』에서 손부 '효원'이 '청암부인'의 삶을 반복한다는 것이 김윤식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효원의 삶이 청암부인의 그것과 다르다면 『혼불』을 '산문형식 미달'로 규정한 해석의 판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혼불』이 미완의 서사라는 논의들에 대해 김병용은 그러한 논쟁보다는 '작가가 왜 결론을 유보했을까'라는 질문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그보다는 서사의 전진과 지연을 동시에 수행한 서술 주체로서의 작가 의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3] 또한 임환모는 『혼불』에서 그 어떤 인물도 서사를 종국까지 추동시킬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하지만 그 서사성의 약화가 노리는 텍스트의 효과를 탐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까닭은 해석이란 대상 텍스트가 탈은폐되는 것, 텍스트 자체 논리에 따라 스스로 존재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라고 보는 데 있다.[4] 본 연구는 그러한 논의들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

2) 김윤식, 「헤겔 시선에서 본 『혼불』」, 『혼불의 문학세계』, 전라문화연구소, 소명출판, 2001.

3) 김병용, 『최명희 소설의 근원과 유역 – 『혼불』의 서사의식』, 태학사, 2009, 42쪽.

『혼불』에서 지배담론으로서의 가부장 의식이 신화[5]로까지 격상되는데 거기에 폭력[6]이 내재되어 있는 바, 억압당하는 주체들의 분열과 저항으로 대변되는 가부장 신화 비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체들은 신화 비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계에 머무른다. 작가 최명희는 그 경계의 세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혼불』의 대미에서 보인다. 전10권에 이르는『혼불』이 아무 죄 없이 가장 고통 받는 인물인 '강실'의 이야기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강실에게 고통을 가하는 주체들을 대리하는 '효원'이 보이는 윤리적 자각이 그것이다. 본고는『혼불』에 나타난 가부장 신화 비판을 통한『혼불』의 서사 읽기의 시도에 다름 아니며 그것이 갖는 문학적 의의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4) 임환모,「『혼불』의 텍스트성과 서사전략」,『한국 현대소설의 서사성과 근대성』, 태학사, 2008, 89쪽.

5) '인간의 사유와 행동을 비합리적으로 구속하고 좌우하는 이념과 고정관념'이라는 의미로서의 신화(神話)다. 이는 우리의 인식이나 관점을 지배하며 경험보다 앞서 그 경험을 생산하는 논리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와도 같은 의미다. 바르트는 그의 책『현대의 신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란 완벽히 역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예술・상식 등에 의해 자연스러운 것, 본래적인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을 참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바르트는 대중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위장된 이데올로기의 함축을 폭로한다. 그러한 바르트에게 "신화"는 '폭로해야 할 환상'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신화 비판'(이데올로기 비판)는 그러한 바르트의 신화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롤랑 바르트,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현대의 신화』, 동문선, 2002)

6)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체계 속에 내재되어 지배, 착취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감지하기 어려운 형태의 강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슬라예보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35-54쪽 참고)

Ⅱ. 지배담론으로서의 가부장 신화

1. 가부장으로서의 청암부인의 신비화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섹스－생물학적인 성(姓)－는 즉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로 만들어져 간다. 그리하여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젠더－사회적 성－이데올로기를 표상하게 된다.[7] 그러한 '성에 기초하여 남성 우위의 형태로 권력이 배분되며 그러한 역할이 고정적으로 배분된 규범의 총체'가 가부장제이며[8] 우리의 전통 양반 사회에서 특권화한 '가문'이 바로 거기에 속한다. 『혼불』에서 청암부인은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암울한 식민지 상황 속에서 남성권력이 부재한 매안 이씨 양반 가문의 가부장의 호명을 받은 바[9], '남성다움'의 젠더 수행을 따른다.

청암부인은 텍스트에서 실제적으로 그려지기보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기억에 의해 재구되는데 청암부인의 삶을 그리는 데 있어 '인월댁'과 '기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인월댁'이 매안 이씨 가문에 시집와 가부장으로서의 청암부인과 대비되는 삶을 사는 듯하지만 청암부인 삶의 다른 한 모습이며, 청암부인의 양아들 기채가 청암부인의 치부(致富)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청암부인과 관련되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월댁은 혼인한 날 집을 나간 신랑 기서를 기다리며 인고의

---

7)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39쪽 참고.

8)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64쪽 참고.

9) '모든 이데올로기는 주체라는 범주의 작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인들을 구체적인 주체로 호명한다.(…)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작동시킴으로써 개인들 가운데 주체들을 모집하거나 개인들을 주체로 변모시키기 위해 작용하거나 기능을 수행한다.' (루이 알튀세르, 김웅권 역,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2007, 393-400쪽 참고)

세월을 보낸다. 청암부인 역시 혼례를 치르고 사흘을 함께 보내고는 죽은 '신랑 준의가 남긴 시간을 살고, 죽어서도 합장해 신랑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 그 처지가 비슷하다. 그런데 청암부인이 가문의 유지와 치부에 집착하는데 비해 인월댁은 그런 일에 마음을 두는 일을 짐스럽고 무겁게 생각한다. 삶의 태도에서 서로 다른 듯하지만 사실인즉 청암부인의 치부는 인월댁처럼 삶이 자기소멸의 허무주의로 치닫지 않게 하려는 반대급부에 다름 아니다. 기채는 생부·생모를 한낱 사사로운 인연으로 치부(置簿)하고 자신을 종손으로 키운 청암부인을 어머니로, 그보다 먼저 자신을 한 부모가 아닌 '매안 이문(李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치부(致富)에 마음을 쏟는다. 19세에 청상이 된 청암부인의 치부 과정이 텍스트에서 석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비해 기채의 그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기채는 아들 강모를 시켜 며느리인 효원의 친가에서 '백석 거리 논문서를 거조'하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굶어죽기 직전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인 밭을 내놓은 민촌의 쇠여울댁에게 밭값을 치르지 않는다. 동생 기표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그려지지만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쇠여울댁을 죽을만치 몽둥이질해서 보내는 인물이 기채다. 쇠여울댁의 그 일은 천민 춘복으로 하여금 분노를 갖게 한다. 청암부인의 삶을 어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기채는 치부에 있어 청암부인의 악덕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이렇듯 가부장으로서의 청암부인은 인월댁이나 기채 같은 인물들의 '동일시'를 통해 그 삶이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청암부인은 가문을 위해 그 삶이 바쳐져 있으며 삶은 가문을 벗어난 민촌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문제는 그러한 청암부인을 원망하기보다 우러르는 민촌 사람들의 태도다. 아들 기채와 며느리 율촌댁에게 청암부인은 신랑 준의가 일찍 죽은 일로 인해 곰배팔이 째보도 살아만 있으면 양반이든 종이든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

런데 친가에 데리고 온 충직한 종 안서방의 아내 안서방네에게 하는 청암부인의 실제 행동은 사뭇 다르다. 청암부인이 마실 냉수를 내오다가 안서방네가 발목을 비끗하는데 그러한 상황은 청암부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부엌 바닥에 안서방네가 흘린, 곧 마를, 한 모금이 될까 말까한 물에 심기가 불편하다. 안서방네는 당황한 나머지 방걸레로 부엌을 닦으려다 청암부인에게 혼나고 결국 자신의 행주치마로 바닥의 물을 찍어내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된다. 안서방네를 부엌바닥에 엎질러진 물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청암부인은 '온갖 목숨이 다 아름다워보이는' 사람으로 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안서방네는 그런 청암부인에게서 모욕을 느끼기는커녕 '상전은 다르시다'며 청암부인을 이상화하는 것이다.

청암부인의 폭력을 어떤 자각 없이 받아들이는 안서방네와 달리 『혼불』 곳곳에 청암부인에 대한 민촌 사람들의 원한 서린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청암부인의 '도피구를 지닌 언술'[10]이 그러한 청암부인의 악덕에 대한 비판을 통제한다. "내 앞에 모이고 쌓인 재물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눈물나게 억지로 빼앗은 것도 있지 싶어져서, 하늘이 무섭고 사람이 가여워 무엇으론가 갚어야 가벼이 될 것만 같았더니라."(제5권, 244쪽) 하는 데서 보이듯 청암부인은 자신의 삶을 훼손할 수는 말로 "숭년의 장리 쌀 이자를 못 갚어갖꼬 논밭을 기양 눈 버언히 뜨고 이자로 뺏김서, 이 집 앞으 와서 죽었다등가아, 거랭이가 되서야 타관으로 떠났다등가"(제3권, 21-22쪽) 하는 옹구네와 같은 비난을 거부하는 것이다.[11] 그리하여 청암부인의 권력은 가문을 넘어 민촌 사람들을 돌보고 나라의 운명에까지 힘이 미치는 것으로 부풀려진다.

10) 자기 비난과 자기 정당화를 동시에 이중적으로 그린 언술이다. 이야기 속 어떤 인물의 자기 비난은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유발하려는 것이다. (미하엘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끼 시학』, 정음사, 1988, 337-345쪽)

11) 황국명, 「『혼불』의 서술방식」, 『혼불과 문학세계』, 전라문화연구소, 소명출판, 2001, 162-163쪽 참고.

『혼불』에서 지배권력의 담지자로서 청암부인의 삶이 미화되고 신비화되어 가부장 신화가 구성되는데 거기에 속신의 보증이 있다. 특히 매안의 저수지 축조 공사에서 청암부인의 신비화가 두드러진다. 저수지를 넓히기 위해 깎은 산자락에 조개 형상의 바위가 묻혀 있는데 물 속에 있어야 할 조개가 산기슭에 자리잡았다는 사실이 불길한 조짐으로 읽힌다. 그동안 매안 이씨 가문에 부인들이 비명(非命)에 가고 청암부인의 초립동이 신랑 준의가 열여섯의 나이에 조세(早世)한 일이 흙더미에 깔려 숨을 쉬지 못하고 목이 말라있던 조개의 원한으로 인한 것이 된다. 그런데 청암부인이 저수지에 물이 찰랑거리게 함으로써 조개의 해원(解寃)을 도운 것이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삶의 '근원'을 마련한 일이 되어 한일합방이 되었음에도 저수지 물이 남실남실 넘치는 한 아무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데까지 비약된다.

이렇듯 속신의 보증까지 더해진 가부장으로서의 청암부인의 삶은 가문에 바쳐져 있으며 민촌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이다. 그런데 청암부인의 권력에 대한 가문의 구성원들의 동일시와 민촌 사람들의 이상화, 그리고 부조리하며 폭력적인 측면이 봉합되어 청암부인의 가부장 신화가 공고해진다.

2. 효원의 가부장 신화 승계

청암부인은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다 살았음에 대한 증거로 혼불을 보이고[12] 손부 효원으로의 가부장 승계를 예비하며 그 신화를 완성하는 듯하다. 그런데 효원의 남편이자 종손인 강모가 이

12) 비명(非命)에 횡사를 한 원통한 사람의 넋은, 미처 몸 속에서 빠져 나가지 못한 채 거리 중천에서 방황하고 혼불도 흩어져 버리는데 제 목숨을 다 채우고 고종명(考終命)하여,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가는 사람의 혼불은, 미리 나가 들판 너머로 강 건너로 어디 더 먼 산 너머로 날아간다고 한다. (제3권, 104쪽)

씨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에 대한 보증이었던 사촌 누이 강실과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가문의 유지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 간 곳 모르는 종손 강모를 기다리다 9일장을 치르게 된 청암부인의 출상일, 죽어서도 자손을 돌보고자 했던 청암부인의 혼은 문제의 강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이다. 혼인날 가마보다 더 곱게 꾸민 할머니 청암부인의 상여를 배웅하는 강실이 자신의 모든 색깔이 할머니의 상여에 실린 것처럼 느낀다. 청암부인의 상여가 강실의 그것이 된 것이다. 그리고 청암부인의 혼불을 받아들이며 반성없이 청암부인을 우러르던 효원의 가부장 승계도 차질이 빚어진다.

『혼불』에서 청암부인은 손부 효원에게 가부장 승계를 예비하지만 사실상 효원에게 가부장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청암부인에 유효했던 가부장 권위가 효원에게 이르러 그 효력이 닿지 않는 것이다. '호걸의 풍모'를 띈 청암부인의 남성다운 외모는 사람들에게 숭앙의 대상이었고 위엄과 결단성 있는 행동들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에 걸맞았다. 하지만 그러한 청암부인과 달리 효원의 남성다운 외모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된다. 양반으로서 '천한' 민촌 사람들한테 치욕을 당하면서 효원은 청암부인처럼 위엄있는 행동을 보이지도 못한다. 그뿐 아니다. 남편 강모의 부재로 인한 독수공방에 효원은 잠 안 오는 밤을 새워 책을 읽다 시부모에게 된소리를 듣는다. 일꾼들에게 새참을 넉넉히 낸 일은 손이 커서 살림을 새게 하는 것이 되어 역시 시어머니인 율촌댁에게 모진 소리를 듣는다. 자신이 죽으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했던 말이 청암부인의 후덕으로 회자되는 비해 효원의 비슷한 행동은 되려 비난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효원의 권위, 가부장 승계는 청암부인이 인정하고 효원이 수긍하는 그 둘의 관계이지 그밖의 사람들의 인정은 쉽지 않아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청암부인은 남편과 시부가 죽고 없는 관계로 가부장으로서 온전한 권력행사가 가능했다. 그

에 비해 효원은 시부 기채가 건재하고 남편인 강모 역시 부재하지만 아직 살아있으며 가문 일속들이 가부장으로서 강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부장 권력 다툼의 장에 있는 바, 애초에 효원에게는, 버틀러가 말하는 남성다움의 젠더 수행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효원의 가부장 승계는 끝없이 지연된다.

그런데 효원은 양반 가문의 여느 여성들에게서 기대되는 여성성과는 일찍부터 거리가 있다. 갓 결혼한 효원이 가부장적 의식과는 대치되는 대결의식을 신랑 강모에게 갖고 있는 데서 효원의 남다른 면모를 읽을 수 있다.

> 내가 이 자리에서 칵 고꾸라져 죽으리라. 네가 나를 어찌 보고…….
> 이미 새벽을 맞이하는 대숲의 바람 소리가 술렁이며 어둠을 털어내고 있는데도 효원은 그러고 앉아 있었다. (…중략…)
> 아아……저런 것을 믿고…….
> 효원이 본 것은 신랑의 민숭머리였다. (…중략…)
> 이제야 막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간 지 한두 해 되었으니, 의당 머리를 깎았으련만, 그리고 그런 머리를 처음 본 것도 아니었건만, 효원은 가슴을 진정하기가 어려웠다.
> 비릿한 역겨움이 목을 밀어 올린다. (제1권, 39-42쪽)

첫날밤, 신부 효원을 그대로 두고 잠든 강모에게서 받은 수모에 대한 효원의 술회다. 세상에서 함께 사흘을 보낸 것이 전부지만 죽어 육탈하거든 합장하여 달라고 할 만큼 청암부인에게 신랑 준의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데 비해 효원은 강모에게 원한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한 효원의 의식은 강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율촌댁을 비롯해 청암부인의 기대와도 어긋나 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는 운명에 대한 한탄이 효원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암부인의 가부장 권력을 뒷받침하던 속신이 가부장 승계가 예비된 효원에 이르면 그 보증을 거두고 대신 불길한 전조들로 점철된다. 경사스러운 혼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얽히거나 꼬여서는 안 되는, 신랑 신부가 가진 명주실이 그만 얽히고 만다. 이에 '사위스럽다' 생각하고 걱정하는 효원 어머니의 행동에서 이후 효원의 삶이 수월치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행길, 가마에서 내릴 때 시댁의 지붕 꼭대기를 보지 말라는 어머니 정씨의 말을 일부러 거스르기라도 하는 듯 효원은 시댁인 종가에 들어서도 금기에 걸려든다. 그러한 전조는 강모가 신부 효원과의 첫날밤 의식을 치르지 않고 강실과 근친상간한 후 겁간하듯 해 효원을 치욕스럽게 하는 등의 현실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효원은 청암부인에 의해 가부장을 승계할 인물로 호명되고 그 호명을 따르려고 하지만 애초에 카프카적 주체처럼 동일화, 주체화가 없는 호명이었다.[13] 청암부인이 효원에게 거는 기대와 효원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르고, 가문의 구성원들과 민촌 사람들이 효원의 예비된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효원은 가부장 호명의 오인에 사로잡힌 이데올로기적 주체가 된다. 사실 효원에게는 청암부인과 달리 호명의 과정에 저항하는 '주체 안의 주체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간극이 효원의 의식에서 아직 열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가부장의 호명을 반성 없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직 효원은 가부장 신화의 자장권에 속해 있는 인물이다.

---

13) 법이나 성(城)처럼 신비로운 관료적인 실체에 의해 호명되고 그것을 찾아 헤매지만 타자의 부름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카프카적 주체다. (슬라예보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86-87쪽 참고)

Ⅲ. 사회적 증상으로서의 가부장 신화

1. 가부장 신화의 자기균열, 근친상간

『혼불』에서 전통사회인 매안 이씨 가문은 구성원들의 배타적 자기동일성을 원환으로 하여 유지된다. 그러나 근대라는 시간에 맞닥뜨려 가문 구성원들의 자기비판이 이루어지고 가문의 권위에 균열이 생긴다. 청암부인의 종손인 강모, 강모와 동년배인 매안 이씨 가문의 강태와 강호는 매안 이씨 가문의 상징계적 질서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주체들이다. 강태는 할머니 청암부인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그러한 가문에 비루하게 빌붙어 사느니 피가 우는 대로 살겠다고 강모에게 선언한다. 그리고 기채에게 종들을 속량(贖良)할 것을 권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고 싶은 강호가 있다. 그러한 강태와 강호의 생각이 가문과 직접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비해 강실과 근친상간을 저지른 강모의 행동은 가문의 권위에 균열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다.

근친상간은 동물적인 단계에서 문명을 가진 문화적 존재로 넘어가는 단계의 인간 집단에서 두루 발견되는 것으로 가족과 사회집단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근친상간의 금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14] 라깡에 의하면 금기는 우리의 무의식에 없는, 대타자가 만들어낸 것인데 그러한 금기가 모여 법이 된다. 그리하여 최초의 법은 불법이며 필연적으로 폭력이 수반되고 이후의 법은 최초의 폭력을 내재한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15] 근친상간의 금기는 그러한 법

14) 이동재,「『혼불』에 나타난 역사와 역사의식 論」,『혼불과 전통문화』, 혼불기념사업회, 신아출판사, 2003, 203-206쪽 참고.

15) 슬라예보 지젝, 이수련 역,『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73～

의 성격을 닮아있는 바, 법의 그 은폐된 폭력에 예민한 감각을 보이는 인물이 『혼불』에서 강모로 보인다. 강모는 종가의 종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강모가 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폭력으로 다가온다. 강모에게 할머니 청암부인은 자신을 '헛되고 실속 없는 찬란한 명예를 등짐으로 지고 살아야 하는, 살아보기도 전에 허옇게 늙게 한' 사람이다. 강모는 그런 할머니에 두려움과 살의를 느낀다. 결국 강모는 강실과의 근친상간을 저지르는데 그때 강모에게 강실은 사무치게 그리운, 죄 하나 없는 강실이 아니라 강모에게 종손의 의무를 지우며 존재를 구속하는 할머니 청암부인, 가문을 대신한다. 그리고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은 실제의 행위가 있기 전 강모와 효원의 첫날밤에 이미 치러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첫날밤 의식을 치르려는 강모가 효원의 머리 화관을 벗기려다 손을 내리고 만다. 그 까닭은 강모에게 들리는 바람소리 때문이었고 바람소리는 강실에 다름 아니다. 신부 효원을 그대로 앉혀두고 잠이 든 강모는 꿈속에서 강실과 근친상간을 저지른다. 그러한 전조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진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이다. 이는 그 둘의 의지가 아닌 매안 이씨 가문을 넘어 그것에 대한 금기가 엄격한 생활윤리였던 전근대적인 사회에 대한 부정으로서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이 된다.[16]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은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매안 이씨 가문의 가부장 신화의 이데올로기적인 장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회적 증상에 다름 아니다.[17] 강모에게 종손의 의무를 강요하는 가문과 그러한 가

84쪽 참고.

16) 이동재, 앞의 글, 206쪽 참고.

17) 마르크스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이 보편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유토피아를 꿈꾸던 19세기적 낙관주의 속에서 그것과 모순되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자유롭게 판매함으로써 자본의 노예가 되는 병리적인 불균형과 균열을 탐색함으로써 '증상'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이에 지젝은 사회 구성원들이 분열이나 적대관계에 있을 때 그러한 사회현상을 '사회적 증상'으로 다

문의 상징적 질서에 저항하는 강모와의 적대관계가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사회의 표면으로 돌출하는 지점으로서의 증상이다. 강모는 사회의 그 부정성을 떠맡음으로써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적인 구성물 속에서 그것 자체의 불가능성을 표상하는 요소를 탐사함으로써 증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갖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18] 자신에게 주어진 종손으로서의 의무는 실체 없는 텅빈 이름인 가문, 그 가문 이데올로기에 종속당한 구성원들의 욕망에 지나지 않으며 그 구속에 저항하는 강모의 행동은 온당하다. 그러나 결국 강모는 자신의 '근원적인 마음의 바탕이고 싹 틔어 둥치를 이루며 제 존재를 부비어 어루어지고 싶었던 사람'인 강실을 일시적인 정욕의 대상을 삼듯 해서 가문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살의를 강실에게 부린 것이 되었다.

강모의 사촌형 강태는 할머니 청암부인이 겉으로는 덕을 베푸는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소작인들을 착취한다며 강모의 사회적 인식을 이끌려고 한다. 그러나 강모는 그 스스로를 착취당하는 위치에 놓음으로써 강태가 주려는 인식의 계기를 자기 안에서 소진시키고 만다. 프로이드가 '꿈의 비밀'이 외현적인 텍스트가 숨기고 있는 잠재적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표현되는 형식에 비밀이 있음을 밝혔듯 돈을 비롯한 물질적 조건에서 궁핍을 모르는 강모는 가난한 자,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강모는 가문으로부터 존재의 구속으로 인해 그 스스로가 피지배계급이라고 항변하지만 강모의 삶의 방식이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강실과 소꿉놀이하며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이 강모가 생각하는 만큼 순수한 것이 아

룬다. (슬라예보 지젝, 이수련 역,『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33-102쪽 참고)

18) 슬라예보 지젝, 이수련 역,『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216-223쪽 참고.

니며 그가 그토록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할머니 청암부인, 매안 이씨 가문의 그늘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유교 가부장제의 금기를 깨뜨리고 강모가 선택한 여성인 기생 오유끼는 강모를 구속하는 또 다른 덫이 된다. 기생 오유끼를 가문에 존재를 구속당한 강모 자신과 동일시하고 연민을 느끼면서도 계산하면 그만이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대상에 불과하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강모는 사람이 상품으로 물신화되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또 다른 억압의 장소에 편입됨으로써 사회적 증상을 되풀이한다.

2. 권력의 재생산, 변동천하의 꿈

『혼불』의 매안 이씨 가문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민촌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문제가 들어있다. 일 년 중 가장 바쁜 모내기철, 두레는 마을의 성년 남자가 의무적으로 참가해 모내기 할 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순번을 정해 네일 내일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풍년을 기원하며 기쁘게 논 모를 꽂는 모임이다. 종가의 모내기를 시작으로 마지막 집까지 똑같이 일을 하고 끝낸다는 데서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여기에 폭력이 숨겨져 있다. 어릴 적 강모는 안서방의 등에 업혀 보통학교에 다녔다. 학교에 가는 도중 안서방이 늦바위고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너른 들이 청암부인의 땅이고, 산 너머 들 너머에도 청암부인의 땅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모에게 말한다. 그 끝없는 청암부인 땅의 모내기가 다 끝나야 다음 순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촌 사람들 대부분이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 들 날이 없지만 제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모를 꽂을 논이 없으니 사실상 두레가 내세우고 있는 취지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니 너무 더운 날이나 너무 추운 날은 안 죽겠다'는 청암부인 말 뒤에 '봄 가을 다 뇌두고 천지가 얼어붙는 동짓달

에, 그것도 일년 중에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을 바로 앞둔, 길고 깜깜한 밤의 복판에서 운명하였다'는 민촌 사람들의 비아냥이 따른다. 또한 청암부인 자신이 생전에 사람을 좋아했으니 죽은 후에 동네 사람들을 후히 먹이라고 하고 제사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 뒤에 '살아 생전에 큰 재산 모으느라 남 못할 일 많이 했으니 죽어서라도 인심을 써야지 원수 안 지고 좋은 곳으로 갈 것 아니냐'며 민촌 사람들이 비죽거리는 것이다.

청암부인으로 대변되는 종가의 폭력에 대해 청암부인의 충직한 종 안서방, 양반들 이야기만 하면 핏대를 세우는 춘복에게 씨가 달라서 어쩔 수 없다며 나무라고 또 달래는 공배 같은 인물들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세상을 꿈꾸며 양반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주체들이 있다. 조상의 은덕으로 천민의 굴레를 벗고자 청암부인 묘에 아비 홍술의 백골을 투장하는 무부(巫夫) 만동과 그의 아내인 당골네 백단, 종의 몸으로 양반인 기표한테 당해 낳은 봉출을 매안 이씨 가문에 기입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 봉출 어미 우례, 양반의 피가 섞인 자식 낳기를 소원하는 천민 춘복이 그들이다.

매안 이씨 양반 권력에 도전하는 인물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춘복의 눈에는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것들이 특별한 까닭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춘복이 핏줄에 양반들 못지않은 한 집착을 보인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천민의 피에 천추의 한을 가진 춘복은 근친상간한 사실이 암암리에 퍼져 혼사가 막힌 강실의 처지를 이용해 양반의 피를 가진 지식을 낳기를 소원하며 그 일을 감행한다. 대보름 밤 떠오르는 달을 보고 강실을 자신의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빌며 춘복은 예전에 공배가 들려준 새우젓 장수 이야기를 떠올린다. 어느 새우젓 장수가 새벽부터 매안 고샅을 돌며 새우젓 사라는 소리를 외치는데 마침 매안의 어느 양반이 글 읽는데 소란하다며 머슴을 시

켜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런데 새우젓 장수가 계속 젓 사라는 소리를 외치고 다니자 화가 난 양반이 머슴을 시켜 새우젓 장수를 방죽에 패대기치게 한 것이다. 문제는 새우젓 장수가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것인데 그 남루한 새우장수의 무력함에 부아가 치민 춘복은 글 읽는 양반을 방죽에 처넣어 흠뻑 젖은 참혹한 몰골로 새우젓 장수처럼 허우적이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거조께 팔아서 목구녁에 풀칠이라도 헐라고 허는 인생을, 불쌍하게는 못 할망정 젓 사란 소리 시끄럽다고 방죽으다 처박은' 양반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짓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촌 사람들의 무력함에 춘복은 피가 끓는다. 그러한 춘복의 증오는 온당하다.

춘복은『혼불』에서 변동천하를 꿈꾸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변동천하, 그 혁명의 에너지인 정당한 증오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다.[19] 브레히트의『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에서 '분노가 충분히 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 낼 수 없다'는 억척어멈의 말처럼 강실이 자신의 아이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 '세상은 무너져도 좋은 것'이 되는 데서 춘복은 혁명, 변동천하의 에너지를 잃고 만다. 춘복은 한 시대의 민촌의 밑바닥에서 그 시대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며 변동천하의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하지만 춘복의 그러한 꿈은 인간존재의 자유로운 해방을 향해 있지 않다. 신분상승, 양반권력으로의 편입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재생산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혼불』에서 이씨 가문에 대한 강모의 저항과 춘복의 도전이 자기모순으로 인해 역사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넓혀지지 못한 경계의 지점에 강

19) 벤야민은 블랑키의 혁명론을 차용해 혁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증오와 희생정신을 든다.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길, 2008, 343-344쪽.)

호가 들어선다. 강호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자와 자기 몫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자의 자리가 대를 물려 공고해지는 세상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강호는 그동안 가문이 지켜온 위세와 명예를 춘복으로 인해 송두리째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한 강호의 허약한 인식은 강모와 강태에게 '찬규의 난'을 들려주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천한 노예 찬규'는 '죄'보다 무거운 신분의 굴레를 벗기 위해 노비·천민·상민을 모아 세상을 고치려 했으나 형장의 이슬이 된다. 그런데 찬규의 태생이 남원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백제인이 그 까닭을 모른 채 중앙권력으로부터 배제당해왔다는 사실이다. '남원이 찬규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강호는 매안 가문붙이들에게 죽을 만큼 맞은 춘복, 그리고 백단과 만동에게서 찬규의 귀곡(鬼哭)을 들으며 '유구하고 융성하고 중요했던' 남원이 '하찮은 찬규 하나'를 품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다고 나선 찬규는 강호의 생각처럼 '하찮은 찬규 하나'가 아니다. 그 하나가 세상 전부가 될 수 있는 찬규이기에 '조정'은 그 안위에 위협이 되는 찬규를 살려둘 수 없었던 것이다. 강호는 춘복을 '하찮은 찬규'에 투영하는데 춘복뿐만 아니라 백단 그리고 만동 역시 찬규처럼 하찮은 그들이 아니다. 백단과 만동이 청암부인 묘에 아비의 뼈를 투장(偸葬)한 사건은 양반들을 능멸한 것이며 그들의 권력에 대한 도전인 만큼, 하찮은 그들이 아니기에 '선지로 피를 덩클덩클 흘릴' 만큼 매질을 하고 또 당한 것이다.

춘복이 매안 이씨 가문에 품었던 증오를 자신의 한을 푸는 것으로 그치고 만 데에서 하찮은 춘복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춘복은 '하찮은 춘복'으로 다 환원되지 않는 '정당한 분노-쇠여울댁과 새우젓 장수에 대한 복수의 꿈-'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춘복의 정당한 분노를 읽어내지 못하고 춘복으로 인해 가문의 안위에 불안을 느끼는 모습에서 결국 강호 역시 가부장 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의 해방에

대한 한계적 인식을 보인다.

벤야민에게는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승리를 거둔 사람은 바닥에 누워있는 자들을 짓밟고 가는 지배자들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주체들은 지배자의 승리를 늘 의문시하는 필명(畢命)의 과제를 안아야 한다.[20] 『혼불』에서 강모와 춘복, 그리고 강호는 청암부인을 위시한 매안 이씨 가문의 부와 권력 의문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개인적인 차원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가문에 대한 강모의 저항이 그러했듯 춘복의 매안 이씨 양반 권력에 대한 도전 역시 사회 변혁으로 이어지고 못하고 사회적 증상에 그치고 만다.

Ⅳ. 가부장 신화 비판으로서의 『혼불』

1. 윤리적 주체 실현의 가능성

작가 최명희는 『혼불』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속이 비어서 제 속에 바람을 지니고 사는 대나무'로 강실의 예사롭지 않을 삶을 미리 보였다. 그리고 강실이 스스로 지은 죄 하나 없이 점점 고통스런 삶을 향해 치닫는데 『혼불』의 제10권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강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강실이 죄 없이 고통을 당한 만큼 그 질곡에서 벗어나면 독자는 후련하게 책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과 무관하게 우리가 여느 문학작품에서 기대하는 쾌감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가 최명희는 『혼불』을 그렇게 맺지 않았다. 기만의 서사를 쓰

20)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길, 2008, 332-336쪽 참고.

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문학의 임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우리가 사물이나 대상에 자동적으로 부여했던 의미를 문제시하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뜻에서다－'이라고 한 바르트의 언급과도 만난다.[21]

『혼불』에서 효원이 아들 철재와 가문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강실을 가문 바깥으로 내몬 것은 가부장을 승계할 효원다운 행동이다. 그런데 강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앞에서 효원은 강실의 무사를 기도한다.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것이다. 강실의 무사는 여전히 효원에게 위협적이지만 효원은 강실이 살아야 자신이 무서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통받는 한 사람으로서 강실이라는 구체적인 존재가 가문과 철재의 이름으로 치환될 수 없음을 자각한 것이다.

효원의 그러한 자각은 라깡이 증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주체가 증환으로서의 증상과 자신을 동일시를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이제까지 효원에게 일종의 이물질이고 구역질나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던 강실이 실은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22] 효원은 청암부인에게 가부장의 자리를 위임받았으나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강실처럼 내몰린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강실이 아니었다면 효원은 거짓보편성을 특권화한 가부장 신화를 이어감으로써 실존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질 것이고 효원에게 아직 파괴되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인간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인간적인 정의마저도 잃게 될 것이다.

어릴적 벤야민은 산보길에 지하갱 채광창을 구멍을 들여다보다 꼽추 난쟁이들의 시선에 사로잡히는데 삶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시선

21) 조너선 컬러, 이종인 역,『바르트』, 시공사, 1999, 78쪽.

22) 슬라예보 지젝, 이수련 역,『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130-143쪽 참고.

을 한 번도 응시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벤야민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정원이 작은 정원이 되고, 벤치는 작은 벤치가 되고, 방은 작은 방이 되고 이윽고 모든 사물들이 사라지고 오그라든다고 느끼는데 자기를 보아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수많은 꼽추 난쟁이들의 시선에 답하지 못하는 사이 벤야민 자신이 점점 꼽추 난쟁이가 되어왔다고 생각한다.[23] 『혼불』에서 강모와 춘복은 벤야민의 말하는 바, 꼽추 난쟁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를 구속을 빠져나오기 위한 강모의 가문에 저항, 천민의 굴레를 벗으려는 춘복의 양반 권력에 대한 도전은 꼽추 난쟁이의 슬픈 몸부림이다. 그러나 강모와 춘복은 적들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을 위해 강실을 매개로 삼음으로써 강실을 또다른 꼽추 난쟁이로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강모와 춘복의 가부장 신화 비판은 역사적인 경험, 탈신화의 차원으로 넓혀지지 못한다.

『혼불』의 대미에서 강실의 고통을 마주하는 효원의 자각은 그러한 꼽추 난쟁이들의 시선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실의 무사를 기도하며 강실에게 용서를 비는 순간의 효원은, 아직 죽지 않고 효원에게 대타자로 남아있던 청암부인을 위시해 민촌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매안 이씨 양반들을 대신한다. 흉년에 장릿쌀 이자를 못 갚자 논밭을 빼앗아 민촌 사람들의 원한을 산 젊은 청암부인, 굶어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 손수 피땀으로 일군 목숨 같은 밭을 내놓았는데 그 값을 받지 못해 결국 자식이 굶어죽은 일을 항변하는 쇠여울댁한테 종을 시켜 몽둥이질한 기채, 기껏해야 일해도 목에 풀칠을 면하기 어려운 새우젓 장수의 젓 사란 소리가 시끄럽다며 종을 시켜 새우젓 장수를 방죽에 패대기친 매안의 글 읽는 샌님 들인 것이다. 물론 효원이 통곡하며 용서를 비는 강실도 청암부인을 위시한 매안 이씨 양반들에게 자기몫을

23)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길, 2008, 148-151쪽 참고.

빼앗긴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대신한다. 억울함을 어찌해볼 길 없이 무력하게 몽둥이질당한 쇠여울댁, 지은 죄 없이 양반한테 당했으면서도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새우젓 장수, 춘복, 만동과 백단 들인 것이다. 청암부인을 위시해 민촌 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갖게 한 매안 이씨 양반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사한 폭력으로 고통 받은 민촌 사람들의 목소리들 듣게 하는 순간에서『혼불』는 서사는 끝난다.

『혼불』의 대미에서 효원의 윤리적 자각은 가부장 신화 비판이 탈신화의 차원으로 넓혀졌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합이 도출된다거나 갈등을 안고 있는 주체들 사이에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 도출이나 화해의 제스처는 차라리 기만이다. 그리하여『혼불』은 서사의 마지막에서 벤야민이 그의 미학 '정지의 변증법'에서 상정하는 바, 사회적 적대 관계와 역사적 단절의 증인이자 그 산물로서의 예술작품의 조건을 충족시킨다.[24]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한 환기'를 통해 주체들로 하여금 윤리적 자각에 이르게 함으로써 보편적 정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 비폭력의 역사를 위한 서사

김윤식은 한국 근대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재음미로『혼불』에 도전적 과제를 던지고 그 탐색의 과정을 '『혼불』의 세계'를 묻는 것으로 돌린다. 그리고 시간이 비롯되어 끊임없이 증식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근대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방식의 하나가 소설이라면『혼불』은 그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그 답이다.[25] '별이 총총한

24) 페터V 지마, 허창운 역,『문예미학』, 을유문화사, 1997, 162쪽 참고.
25) 김윤식,「헤겔의 시선에서 본『혼불』」,『혼불의 문학세계』, 전라문화연구소, 소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26] 이는 신이 인간과 더불어 지상에 있었던 시대의 비유로 대낮과 같은 세상, 어떤 곳도 자기 집처럼 낯익은 시적 세계(서사시)로서 본질적인 것이 확보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영역이다. 그런데 거기에 근대와 더불어 '시간'이 침투가 시작된 것이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자 덤비는 이 시간의 괴물 앞에 안전한 것은 황금뿐이다. 이제, 자아와 세계의 화해를 모색하는 그 구경(究竟)적인 세계(황금시대)를 꿈꾸는 유토피아가 한갓 허구라면[27]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시간을 소거시키는 것이다. 『혼불』의 서사는 그 시간을 소거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28]

청암부인이 죽기 전에 몸에서 먼저 혼불은 청암부인이 잘 살았음에 대한 예증이다. 문제는 청암부인의 혼불이 들판으로 너훌너훌 날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효원이 그 혼불을 빨아들인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효원은 '사람의 절명(絶命)에 앞서 미리 나가 들판 너머 산 너머로 날아서 다음에 태어날 자리를 찾아가거나 저승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혼불'에 대한 속신을 거스른다. 청암부인의 혼불은 죽어서까지

명출판, 2001, 85쪽 참고.

26) 게오르그 루카치,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27쪽.

27) 김윤식, 「헤겔의 시선에서 본 『혼불』」, 『혼불의 문학세계』, 전라문화연구소, 소명출판, 2001, 80-84쪽 참고.

28) 이는 『혼불』 전체의 이야기 시간에서 드러난다. 『혼불』은 전체적으로 제1부 <흔들리는 바람>(1・2권), 제2부 <평토제>(3・4권), 제3부 <아소, 님하>(5・6권), 제4부 <꽃심을 지닌 땅>(7・8권), 제5부 <거기서는 사람들이>(9・10권)라는 5개의 텍스트로 구성되고 그것들은 각각 15, 19, 25, 27, 22(총 108개)의 하위텍스트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서 상위텍스트별 이야기 시간이 어림잡아 제1부는 6년, 2부는 한 계절, 3부는 두어 달, 4부는 한 달 정도, 5부는 단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 시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환모, 「『혼불』의 텍스트성과 서사전략」, 『한국 현대소설의 서사성과 근대성』, 태학사, 2008, 87-89쪽)

가문과 자손들을 돌보려는 청암부인의 집념, 의지로 인해 효원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 효원에게 붙들린 것이다. 청암부인을 비롯한 매안 이씨 양반들이 청산하지 않은 빚, 즉 그들에 의해 억압당하고 억울하게 자기몫을 빼앗긴 민촌 사람들의 원한이 효원의 그러한 행동을 부른 것이다. 그리고 비판 없이 청암부인의 가부장 신화를 받아들이려 했던 효원은 그 빚의 담보물인 동시에 청암부인의 신화에서 빠져나와 해방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윤리적 주체 실현의 가능성이다.

과거·현재·미래의 3분법적 시간관이 과거에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인 데 비해 벤야민의 메시아적 시간관은 과거의 부당한 사건은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3분법적 시간관이 배제한 과거의 역사철학적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성찰의 대상으로 불러들이려는 시간관이다.『혼불』의 대미에서 효원이 3분법적 시간관을 효원이 넘어서려고 한다. 과거에는 폐기되어 버린, 그러나 여전히 실현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꿈-가문의 그늘을 벗어나서도 강실과 행복할 수 있는 강모의 꿈, 정당한 복수를 꿈꾸었으나 도중에 그 에너지를 잃어버린 춘복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들을 향하는 것이다.

벤야민은「역사철학테제」에서[29] 정의로운 혁명을 할 시간은 늘 우리 앞에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여기-the here and now', 정의로운 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충만한 시간', 그러나 '위태로운 시간'이다.『혼불』에서 효원이 강실의 무사를 기도하며 강실이 살아야 자신이 무거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통곡하는 그 시간, 효원이 청암부인의 신화를 벗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문턱, 경계에 있는 시간인 것이다. 그 순간에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를 향하지 않고 폭력을 재생산하며 죄를

29)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역사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길, 2008, 345쪽.

반복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기에 작가 최명희는 다시 변화가 가능한 시간에 『혼불』의 이야기를 끝낸다. 소설 『혼불』은 이제 폭력의 역사를 멈추기를, '적들의 승리에 동참하지 말기를' 소설 내적으로 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시간을 소거하고 충만한 시간에 이르러 그만 멈춘 것이다. 그리하여 섣부른 화해가 아닌, 현실과 거리가 먼 서사적 해결을 보여주는 근대 서사의 기만성 없는 이야기로서 소설 『혼불』은 그 문학적 의의를 획득한다.

Ⅴ. 결 어

이제까지 『혼불』에서 지배담론으로서의 가부장 신화의 허구성을 보이고 가부장 신화의 균열이 되는 주체들의 행동을 사회적 증상으로 읽어냈다. 그리하여 가부장 신화 비판으로서의 소설 『혼불』의 서사 읽기를 시도했다.

애초에 소설 『혼불』은 강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예비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강실의 고통을 가문의 이름으로 치환한 효원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자각하게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끝난다. 『혼불』의 대미에서 강실은 매안 이씨 가문의 권력에 억눌린 주체들, 억울하게 몫을 빼앗긴 '한 사람 한 사람' 들의 상징이며 강실을 마주하는 효원은 청암부인을 위시해 민촌 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갖게 한 양반들을 대신한다. 효원이 강실의 고통을 마주하는 그 순간은 억압과 폭력적인 역사를 그만 멈추고 새로운 역사로의 변화가능성이 충만한 시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 작가 최명희는 바로 지점에서 서사를 멈춘 것이다.

『혼불』은 여전히 억압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거스

르고 소거함으로써 정의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충만한 순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한다. 그리하여 현실과 거리가 먼 서사적 해결을 보이는 근대서사와 다른 기만성 없는 서사로서 소설『혼불』은 그 문학적 의의를 획득하고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최명희,『魂불』, 동아일보사, 1983.

_____,『魂불』1-4권, 한길사, 1990.

_____,『혼불』1-10권, 한길사, 1996.

_____,『혼불』1-10권, 매안, 2009.

단행본

김병용,『최명희 소설의 근원과 유역:『혼불』의 서사의식』, 태학사, 2009.

김석,『무의식으로의 초대』, 김영사, 2010.

임옥희,『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임환모,『한국 현대소설의 서사성과 근대성』, 태학사, 2008.

전라문화연구소,『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혼불기념사업회,『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3.

혼불기념사업회・전라문화연구소,『혼불의 언어세계』, 전북대출판부, 2004.

혼불기념사업회,『그 천의 얼굴』, 태학사, 2011.

루카치(G, Lukacs), 김경식 역,『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바르트(R. Barthes), 이화여자대학교기호학연구소 역,『현대의 신화』, 동문선, 2002.

바흐친(M. Bakhtin), 김근식 역,『도스토예프스끼 시학』, 정음사, 1988.

벤야민(W. Benjamin), 최성만 역,『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길, 2008.

_____, 윤미애 역,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베를린의 연대기』, 도서출판길, 2007.
브레히트(B. Brecht), 이연희 역,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범우, 2010.
알튀세르(L. Althusser), 김웅권 역,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2007.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지마(P. V. Zima), 허창운 역, 『문예 미학』, 을유문화사, 1997.
지젝(S. Zizek),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_____,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컬러(J. Culler), 이은경・임옥희 역, 『문학이론』, 동문선, 1999.
_____, 이종인 역, 『바르트』, 시공사, 1999.

이 논문은 2012년 7월 21일에 투고되어 2012년 8월 13일에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2년 8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최명희의『혼불』연구

최 윤 경

본 논문은『혼불』에서 지배담론으로서의 가부장 신화의 허구성을 보이고 가부장 신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주체들의 행동을 사회적 증상으로 읽어낸다. 이를 통해 가부장 신화 비판으로서의『혼불』의 문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혼불』에서 '청암부인'은 매안 이씨 종가의 가부장으로서 가문을 위해 살았을 뿐, 민촌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청암부인의 삶이 가문을 넘어 민촌과 국가를 위한 것처럼 부풀려지고 신비화되며 손부 효원에게 가부장 승계가 예비된다. 청암부인을 위시한 매안 이씨 가문의 권력에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 바, 그 권력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주체들이 있다. 사촌누이 강실과 근친상간을 한 종손 강모와, 변동천하를 꿈꾸는 민촌의 춘복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 둘은 존재의 해방을 꿈꾸지만 죄 없는 '강실'을 불행하게 만듦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강모와 춘복의 꿈이 역사적인 경험의 장으로 넓혀지지 못하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만 그 자리에서 효원은 한 걸음 나아간다. 강실의 고통을 가문의 이름으로 치환한 효원이 그 잘못을 자각하는 것이다. 작가 최명희는 바로 지점에서 이야기를 멈춘다. 억압과 폭력으로 점철되어온 이제까지의 역사를 그만 멈추고 새로운 역사로의 변화가능성이 충만한, 그러나 동시에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이야기를 끝냄으로써 독자를 비폭력의 역사를 위한 자각으로 이끈다. 그리하여 소설『혼불』은 기만성 없는 서사로서 그 문학적 의의를 획득한다.

주제어: 혼불, 가부장 신화 비판, 폭력의 역사, 기만성 없는 서사

<Abstract>

A Study of Choi, Myeong hee's Honbul

Choi, Yoongyeong

This paper, in Honbul, show the falsehood of patriarch myths, as the dominant discourse and read out the behavior of subjects, causing crack on patriarch myths as social symptoms, which try to clarify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Honbul as critisim of patriarch myths.

In Honbul, Mrs Chungarm as patriarch of the Mean Lee's head family, lived for her family but exercised exclusive power to village people. but her life was inflated and mystificated as if she had lived beyond the family, but for village and country and that the Succession of patriarch reserved to Honbul, her grandson's wife. the violence was inherent in the power of the Meam Lee's family, represented by Mrs Chungarm. so there were personel who resisted and challenged to power. Kangmo,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who offensed the taboo of incest with Kangsil, Cousin sister of him, and Chunbok who dreamed the Changes in the earth, in commoner's village are representative person. the above two person dreamed the presence of Liberation, but fell into self-contradiction, by making Kangsil, who was sinless unhappy.

Hyowon took the place of Kang someone and Chunbok whose dream could not be extended to field of the historical experience but stayed within personel boundary and realized her mistake which she displaced the Kangsil's pain to the family name. the author, Myung Hee, Choi stop the story at that point, stopping the continued history marked by violence and oppression and finished the story

at Dangerous moment when the full possibility of change to the new history, but at the same time the history of violence can be repeated again and again. and that The novel of Honbul, as narrative, does not have deception, obtain the literary significance.

key words: Honbul, critisim of patriarch myths. history of violence, narrative does not have deception.